발크로드를 찾아 우즈베키스탄으로

마인회(회장 홍덕기)에서는 매년 국제 인쇄시장 동향 파악 및 여행을 겸한 해외연수를 다녀오곤 하는데 금년에는 은성정밀 김국 사장의 추천으로 6월 27일부터 7월2일까지 실크로드의 원류인 우즈베키스탄으로 결정하여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카라를 거쳐 5박6일 동안 다녀왔다.

우즈베키스탄에 첫발

회장을 포함한 우리 일행 14명은 잔뜩 부푼 마음으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오후 5시30분에 비행기에 올랐다. 수도인 타슈켄트에 도착하니 그곳 시간으로 9시 30분이었다. 시차가 4시간이니 무려 8시간이나 비행을 하였다.

지친 몸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버스를 타니 어느 창고같은 건물속으로 밀어 넣고는 문을 꽝 닫아버렸다. 첫인상부터 매우 언짢았다. 그곳이 바로 입국심사하는 첫 관문이었다. 줄을 서는 사람도 없고 질서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이다.

마인회에서는 올해 해외연수를 실크로드의 원류인 우즈베키스탄으로 결정,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카라를 거쳐 5박6일 동안 다녀왔다.

엄연히 실내금연 표시가 붙어있는데도 주변이 온통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공항직원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새치기는 다반사요 착한(?) 우리 일행들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았다. 가끔 호명 받는 사람들은 별도로 불려 나간다. 아마도 좀 빽(?)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러시아 말도 모르고 가이드도 없는 우리 일행은 자연히 늦을 수밖에. 천신만고 끝에 1시간30분이나 걸려 겨우 빠져나와 현지가이드와 만날 수 있었다.

공항을 나와보니 흔히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거리의 아이들, 어린애를 업은 아주머니의 불쑥 내미는 손, 미안하긴 하지만 눈이 마주치면 곤란할 것 같아 먼 하늘만 바라보다 버스에 올랐다. 부미호텔에 도착하여 완전히 골아 떨어진 후 아침에 사마르칸트로 이동하였다.

티모르 왕국의 사마르칸트

4시간여 고속도로를 달리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우즈베키스탄에 적응을 해 나갔다.

구소련에서 10년 전에 독립된 나라로서 위치는 중앙아시아 제일 내륙에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에 있다. 면적은 한반도 2배에 달하며 인구는 2500만명 정도다. 우즈베키스탄인이 70%정도이며 30%정도는 다국적민.

세계 종족이 150여종이 있는데 그곳에 102개 종족이 있다고 하니 인종 전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브리계, 아랍계, 러시아계, 유럽계 그리고 동양인들 중에는 고려인, 중국계, 몽골계 등등 흑인 계통만 없고 전 세계 종족이 다 모인 듯 싶다. 그래서 이 나라는 여자들의 윤곽이 뚜렷하고 예쁜 것이 큰 자랑이다.

부하라 오사시스 등대

기후는 우리와 같은 온대지방이면서도 해안이 없고 해발이 높기 때문에 대륙성고기압이 형성된 나라로서 건기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비 한방울 내리지 않고 12월부터 3월까지인 우기에 약간의 비와 눈이 오는데 연 강수량이 250mm정도라고 한다.

온도는 우리나라보다 3~4도 높고 바람 한 점 없어 여름에는 35~40도까지 올라가는 따가운 햇빛 때문에 2~3시간만 나갔다와도 살이 새빨갛게 익어버린다. 이런 척박한 기후 때문에 전국토의 60~70%는 사막 또는 초지로 써먹을 수 없는 땅이다.

지금은 댐을 막아 수로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 조금씩 개간을 넓혀 나가는 중이다.

농업국이면서도 논농사는 별로 없고 주로 목화, 밀, 옥수수 등 밭농사와 포도, 살구, 능금 등의 과일농사가 강한 햇빛 때문에 매우 잘되며 맛도 굉장히 좋다.

더욱 신기한 것은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어 민둥산이나 마을이 있는 평지에는 나무들이 많다.

물이 없어 나무 하나 하나마다 호수를 이용해 물을 주고 수도를 만들어 인공으로 나무를 심어 가꾸며 아끼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 받았다.

전 국민의 75% 이상이 이슬람교도들이라고 하는데도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돼지고기도 시중에서 흔히 먹을 수 있으며 1부 1처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회교국이면서도 매우 개방된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의 월급이 40~50달러 정도이며 그런 직장도 구하기가 매우 힘들며 국민의 14%정도가 실업자라고 한다.

학교과정은 초등과정이 10년이며 그 과정을 거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에 갈 수 있다. 대학등록금은 모두 국비며 장학금이 주어져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그 장학금으로 생활까지 한다고 한다.

결혼연령이 빨라 20세 전후면 거의 결혼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의 여자가 원하여 이혼을 한다. 남자가 무능하다고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세계 종족이 150여종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102개 종족이 있다고 하니 인종 전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브리계, 아랍계, 러시아계, 유럽계 그리고 동양인들 중에는 고려인, 중국계, 몽골계 등등 흑인 계통만 없고 전 세계 종족이 다 모인 듯 싶다.

남성들이 여자들에게 꽃을 바치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부인, 어머니, 딸, 누이 등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 나라는 유독 꽃이 많다. 꽃가게도 여기저기 있다. 자연히 꽃 때문에 꿀이 많이 생산되며 온몸 꿀맛사지도 일품이다.

1960년에 타슈겐트에 대지진이 일어나 2~3만명이 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때 많은 건물이 무너져서 도시계획이 잘 된 것인지는 몰라도 도시의 건물과 도로들이 매우 넓게 계획되었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전차, 버스, 고속버스 4종류가 있으며 영업용 택시, 자가용영업택시 등이 있다.

사마르칸트 티모르 궁전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인쇄물 대부분 러시아서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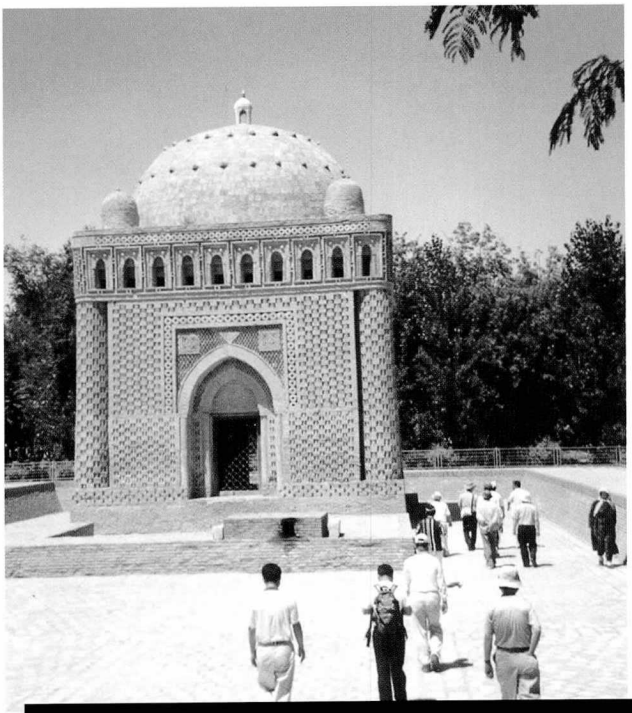
시내 자동차의 반은 소련제 차이고 거의 반은 대우차다. 빌딩 안의 에어콘은 거의 LG제품이며 그 나라 국민 대다수가 한국에서 수출한 PINE이라는 한국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대단한 국력임을 느꼈다.

비행기 생산공장이 있으며 대우자동차공장이 있다.

인쇄업은 책자 및 큰 인쇄물은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이곳은 소규모인쇄물만 취급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호텔안내장을 요구하니 기다리라고 한 후 복사기에서 한 장 복사를 해줄 정도이다. 앞으로 인쇄업도 진출해 봄직한 품목인 것 같다.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은 카자흐스탄의 영토를 지나야만 빠르다고 하여 몇 번의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꼭 현지가이드가 교섭을 하고 와야만 통과가 되었다.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다.

지루함을 끝내고 드디어 사마르칸트에 도착하니 13세기에 그 유명했던 티몬트왕국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있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기초를 세운 영웅이다.


부하라에서 제일 오래된 신전

전나라를 평정하여 놓고 티므로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올리백과 사루호에 의하여 더욱 더 발전하며 건축물을 짓고 천문대를 세우는 등 역사와 문학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건설하였다.

레기스탄 광장, 아프로시앞 언덕, 남쪽 기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묘지, 1년 365일 6시간 9분9.6초로 오늘날 현대의 관측과 1초도 오차가 없는 올리백 천문대와 회교문화의 학교를 지은 메드레세 등은 매우 볼만한 교적이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적들이다.

오아시스의 중심부 부카라

다음날 또 고속도로를 4시간이나 달려 부카라에 도착하였다.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부카라는 오아시스였던 곳이다.

지금도 중심부에는 호수가 있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음식도 팔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으로 500여년 전에 지은 토성들이 남아 있으며 사막에서 낙타를 탄 상인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높은 등대 같은 원형의 돔을 만들어 반사되는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사막의 등대다.

500년이나 된 뽕나무 위에서 맨몸으로 오아시스 물속으로 뛰어드는 원주민 아이들을 보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름이 30cm나 되는 딱딱한 빵(홀레보)이 주식이며 양고기, 쇠고기, 돼지고기를 끼운 꼬치와 양파, 당근을 반찬으로 같이 먹는 것이 그들의 우리나라식 백반이다.

타슈겐트로

부하라에서 버스보다도 작은 국내선비행기(30인승)를 타고 가슴조리며 2시간만에 타슈겐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비취빛 호수로 덮인 휴양지로 향하였다. 석회성분이 많아 물이 초록색을 띠며, 중국의 천산산맥쪽의 천연설이 녹아내려 만들어진 호수다. 이곳에 댐을 막아 시내로 물 공급을 하고 있다.

수심이 17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다. 장관이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는 그곳의 국민들이지만 항상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누구나 보면 서로 웃고 금방 친해지는 성격들이 많아 매우 부러웠다.

시내 중심부의 바스라 재래시장의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무공해 천연자연속의 과일들이어서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아무 탈이 없었다.

서울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얼마나 부러운가. 또다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계속 배운다.

일본 교또 전철역에 있는 관학유창(觀學遊創)이라는 글이 떠오른다. 관광 그 자체는 배움이요 유람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머리를 만들어준다는 글귀가 떠오른다.

바스라의 재래시장 모습

한용근 · 금영문화사 대표